

통합적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연구

공 인 숙 (순천대학교 생활과학부 부교수)
민 하 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이 주 리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김 영 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부교수)
이 점 숙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강사)

출산률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비 부모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이 주로 부모역할의 지식이나 기술적 측면에 치중하는 것에 비해, 부모 역할에 대한 태도와 지식을 함께 증진한다는 의미에서, 통합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명명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부모됨의 동기 인식하기,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 역할의 인지 및 기술 익히기, 의사소통 기술 익히기, 주변 자원 이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사전검사 후, 1주일에 2시간씩 총 12회에 걸쳐 116명의 대학생에게 실시되었다. 비교를 위해 통합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138명의 대학생에게도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양육지식이나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없었다. 12 주 후에 두 집단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 부모됨의 동기, 자녀 양육지식 및 양육효능감, 그리고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Win SPSS 9.0의 χ^2 , t검증, 일원변량분석, Scheffé의 추후검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사후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출산 의향의 경우 부모교육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의 경우 자연섭리, 노후의탁, 도구성, 내적 성숙, 부부결속, 또는 대리만족을 이유로 아이를 낳겠다는 응답은 부모교육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대학생의 태교 지식과 양육효능감은 통합적 부모교육 프로그램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통합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대학생 집단이 태교, 신체 영역, 사회 정서 영역에 관한 자녀 양육 지식이 높았으며, 양육효능감도 높았다.

넷째, 대학생의 양육 지식 중 태교에 관한 지식과 사회 정서 영역에 관한 지식은 자녀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